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맞춤정장 명장 권오수테일러와 바톤 권준우 대표 출연

김민혜 기자 승인 2016.11.18 18:00 입력 2016.11.18 18:00 댓글 0



오는 19일(토)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는 김구라가 '맞춤 정장'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50년 경력의 명장 권오수 테일러와 그의 아들인 정장 디자이너 권준우, 그리고 조영구와 허영지를 초대해 맞춤 정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12(토) 방송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체촌과 재단까지의 제작과정을 선보였고 19(토) 방송에서는 재단된 옷으로 가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서 김구라는 슈트 디자이너 권준우와 함께 각종 슈트와 텍시도에 대한 설명에 나섰고, 배우 김수현과 조진웅, 이민호가 직접 착용했던 텍시도를 현장으로 가져와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수클래식은 이날의 초대 손님인 권오수 테일러가 1967년 소공동 매장을 시작으로 1986년도에 최초 한국 남성 예복의 개념을 도입해 50년째 이끌고 있는 남성 예복 브랜드이다.

그의 아들인 권준우 디자이너는 맞춤정장을 2대째 대물림하며 '바톤 권오수'를 이끌고 있다.

한편 맞춤 슈트를 입은 김구라의 모습은 19일(토)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혜 기자 kmh@siminilbo.co.kr